강성웅 교수
한미참의료인상 수상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환자 위한 헌신적 봉사

강성웅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교수가 제16회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자들에 대한 헌신적인 진료와 봉사활동은 물론 의료비 지원협력 사업 및 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됐다.

강 교수는 1992년부터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질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내최초로 호흡재활 프로토콜을 개발해 2001년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950명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2008년부터는 사지마비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및 방문서비스를 실시 하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매년 600건의 상담과 140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호흡재활이라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적어 2009년부터 지방의료기관에 방문해 호흡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환우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매년 2명의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무료로 호흡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성웅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한미참의료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해 주는 것 같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오늘날 호흡재활센터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함께해온 기부자들과 동료들 덕분이며 단지 내가 대표로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며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2002년 제정해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금 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